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19)

1.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도¹⁾

□ [일본 기업 동향]

- 나카무라(中村) 일본무역회 회장은 “정말 중요하며 대체가 어려운 반도체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,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”이라는 견해를 제시²⁾
- 한편 삼성전자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대형 전기제품 제조업체는 “한국 측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”며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표명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규제대상이 되는 화학제품 등 전략물자를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00개 회사 미만으로,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기 때문에 한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³⁾

2. 한국인 일본 관광 급감 관련

□ [동향]

- 일본정부 관광국에 따르면, 지난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30만 8,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거의 절반인 약 48% 감소⁴⁾

1) 「日本企業の影響軽微 韓国の優遇除外 半導体メモリー 対象外で」 『静岡新聞』(2019. 9. 19).

2) 「

3) 「日本の優遇除外 韓国9割が賛成」 『産経新聞』(2019. 9. 19).

4) 「官房長官 韓国人旅行者半減も全体では増加 来年は目標達成を」 『NHK NEWS WEB』(2019. 9. 19).

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스가(菅) 관방장관은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것과 관련,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, 그 수가 내년에 4,000만명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명
- o 한국에서 온 관광객 수는 대폭 감소한 한편, 중국, 미국 및 유럽, 동남아시아 등의 관광객 수는 대폭 증가하여 2019년 1~8월 전체 여행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3.9% 증가
- 타바타(田端) 관광청 장관은 SNS 등으로 일본의 매력을 알리는 것에 더해 한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제시⁵⁾

□ [일본 지자체 동향]

-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오키나와(沖縄) 등의 지자체는 한국에서 여행회사와의 상담회 개최, 관광 관련 업자에게 긴급 자금 지원 등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중⁶⁾
- o 오키나와에서는 외국인 숙박객 중 25%가 한국인임. 한일 관계 악화로 여행객기 편수를 주당 70대 운항에서 약 30대 운항으로 줄였음.
- o 또한 호텔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9월 하순에 서울에서 한국의 여행 회사와 상담회를 개최, 오키나와 투어 상품 판매에 주력할 예정임.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8월 한국인 관광객 급감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5월 이래 8년 3개월만의 최대 감소라고 보도
- 마이니치 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한국 이외의 아시

5) 「訪日韓国人半減 先月、大震災以来の下げ幅」 『産経新聞』 (2019. 9. 19).

6) 「自治体に危機感 対策本腰 誘客多角化や緊急融資 「静観してられない」 訪日韓国人 半減」 『静岡新聞』 (2019. 9. 19).

아 국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고 보도⁷⁾

- 한편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지 및 불매운동과 연관된 일본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양국 정부가 손을 놓은 채 사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약하다는 평가도 존재⁸⁾
- o 오이타(大分)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남성 지배인은 한국인 고객이 9월에 0명이었으며, 예약도 없다고 하면서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각오는 했었지만, 0명일 줄은 몰랐으며, 서비스업자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

3. 한일 외무장관 및 외무국장 회담 조정 관련

□ [동향]

- 일본 외무성은 9월 20일 한일 외무국장급 협의가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⁹⁾
- o NHK는 양국 국장간 강제징용 배상판결, 지소미아 종료 결정,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함.
- 또한 UN 총회 개최 기간에 양국 외무장관의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양국 간 일정을 조율중에 있으며, 국장급 협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
- 그러나 NHK는 외무성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바로 개선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, 따라서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

4.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감소 전망 관련

□ [동향]

7) 「訪日韓国人：訪日韓国人48%減 行列消えた観光地 他国からの誘客探る」 『毎日新聞』 (2019. 9. 19).

8) 「(時時刻刻) 日韓対立、経済に実害 観光客、急減「いつまで続く」」 『朝日新聞』 (2019. 9. 19).

9) 「日韓 外務省局長協議 20日開催へ」 『NHK NEWS WEB』 (2019. 9. 19).

- 국제 반도체 제조장치 재료협회(SEMI)는 2020년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액이 전년대비 약 7% 감소한 558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¹⁰⁾
- o 판매 저하 이유로 SEMI는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졌으며,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통상 마찰도 한 요인이라고 하였습니다.

10) 「半導体製造装置、伸び鈍化、20年販売額7%増、日韓不調で下方修正。」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9. 19).